

Title: The Judges – Sermon 9: Sermon Notes

Scripture: Judges 12:7-15

Date preached: May 15th 2022

Scripture: Judges 12:7-15

7 And Jephthah judged Israel six years. Then Jephthah the Gileadite died and was buried among the cities of Gilead. 8 After him, Ibzan of Bethlehem judged Israel. 9 He had thirty sons. And he gave away thirty daughters in marriage, and brought in thirty daughters from elsewhere for his sons. He judged Israel seven years. 10 Then Ibzan died and was buried at Bethlehem. 11 After him, Elon the Zebulunite judged Israel. He judged Israel ten years. 12 And Elon the Zebulunite died and was buried at Aijalon in the country of Zebulun. 13 After him, Abdon the son of Hillel the Pirathonite judged Israel. 14 He had forty sons and thirty grandsons, who rode on seventy young donkeys. He judged Israel eight years. 15 Then Abdon the son of Hillel the Pirathonite died and was buried in Pirathon in the land of Ephraim, in the mountains of the Amalekites.

7 압다는 6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죽어 길르앗의 한 성에 장사되었다

8 그 다음 사사는 베들레헴 사람 압산이었다 **9** 그에게는 아들 30 명과 딸 30 명이 있었다 그는 딸들을 자기 집안 사람이 아닌 다른 집안의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고 또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는 다른 집안에서 처녀 30 명을 데려왔다 **10** 그가 7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11-12** 그 다음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10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죽어 스불론 땅에 있는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13 그 다음 사사는 비라돈 사람 할랄의 아들 압돈이었다 **14** 그에게는 40 명의 아들과 30 명의 손자가 있었으며 그들은 70 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는 8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15** 죽어 이말렉 사람의 산간 자리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Review

Last time we began our examination of the eighth judge Jephthah. As I said last time he is considered a major judge and his story is given to us in some detail. In our last study we looked at three aspects of his life; his background, his calling to be a judge and his attempted negotiation with the Ammonites. Jephthah became a judge at a particularly idolatrous time in Israel's history. The 45 years of peace that came to Israel under the judges Tola and Jair came to an end. Sadly, the cycle of sin began to turn again and the people rejected God.

They turned on this occasion not only to the pagan gods of their immediate neighbours in Canaan, but also to the gods of their distant neighbours. God's anger burned fiercely against this treachery, and He allowed the Philistines and the Ammonites to oppress them. This oppression would last for 18 years.

The judge that God raised up to free his people was Jephthah. He was perhaps an unlikely choice. In his favour he had a reputation for being a man of valour. This meant he was respected and admired as being a mighty warrior. However his personal background was somewhat unfavourable. He had been born through a liaison between his father and a prostitute. Because of this his legitimate brothers despised him and eventually drove him out of the house. He became a social outcast. In this dejected state he went to live in the land of Tob where he led a band of adventurers. This gang of men would go on raids against Israel's enemies.

However when the Ammonites threatened Israel the elders realised they needed a hero to rescue

them. Jephthah seemed like an ideal candidate so the elders of Israel set off to Tob to find him. Jephthah was understandably reluctant to help them. They had driven him from his home and shunned him. Why should he help them now in their hour of need. When they told him that they would make him their leader and follow his instructions he agreed to go with them.

His approach to the Ammonites was interesting. At first, he tried to negotiate or reason with them. He hoped that he could convince them to leave. Despite their claims that it was their land, and that Israel had no right to be there Jephthah explained that they had no legitimate reason to be there. Unfortunately he was unsuccessful. Therefore a battle was imminent.

Today we will conclude our study on Jephthah . We will consider three things. His victory, his vow and his death. Following this we will then turn to the next three judges; Ibzan, Elon and Abdon.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덟 번째 사사 입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는 주요 판사로 간주되며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연구에서 우리는 그의 삶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배경, 재판관으로서의 부르심, 암몬 사람들과의 협상 시도.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상 특히 위상을 숭배하던 시기에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 돌리와 아일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 45 년간의 평화는 끝났습니다. 슬프게도 죄의 악순환이 다시 돌아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에 가나안에 있는 바로 이웃의 이교 신들뿐 아니라 먼 이웃의 신들에게도 의지했습니다. 이 반역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타올랐고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억압은 18 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세우신 사사는 입다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호의로 그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강력한 전사로 존경 받고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배경은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매춘부 사이의 연락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형들은 그를 멸시했고 결국 그를 집에서 내쫓았다. 그는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 이 낙담한 상태에서 그는 모험가 무리를 이끌고 Tob 땅에 살기 위해 갔다. 이 무리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습격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때 장로들은 그들을 구출할 영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다는 이상적인 후보로 여겨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찾기 위해 돕으로 떠났습니다. 입다는 당연히 그들을 돕기를 꺼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집에서 쫓아내고 피했습니다. 그가 지금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그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때 그는 그들과 함께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들과 협상하거나 추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떠날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땅이고 이스라엘은 그곳에 갈 권리가 없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곳에 갈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전투가 임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에 대한 연구를 마칠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의 승리, 그의 맹세, 그의 죽음. 다음으로 우리는 다음 세 명의 심사 위원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

His victory

As we saw last time the negotiations between God's people and the Ammonites had broken down. Jephthah had hoped to convince them that they had no claim on the land. However as we often see greedy men with power cannot often be reasoned with. The only way to resolve the issue would be to defeat them militarily. Jephthah as we said last week was a mighty man of valour. He was we assume comfortable and confident going into battle. But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even strong men at times experience fear and weakness. God needed his judge to be strong and resolute. A weak or indecisive man would not lead the people well. This was why God provided spiritual assistance to Jephthah. In chapter 11 verse 29 we read about the Spirit of the Lord coming upon Jephthah.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Jephthah.

It was through this divine empowering that Jephthah gained confidence and assurance. He had faith that God was with him. Therefore in order to prepare he travels through a number of regions gathering warriors for his army. When he feels that his forces are ready he boldly advances towards Ammon. It is during this period of time that he makes his famous vow. I'm going to come back to talk about that later.

God grants the Israelite army a famous victory. They were able to destroy 20 Ammonite cities and also killed a large number of the enemies soldiers.

This series of defeats effectively ended the Ammonite oppression. It would in fact be fifty years before the Ammonites again rose up and threatened Israel (1 Sam 11:1).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암몬 족속의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압다는 그들에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을 확신시켜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듯이 권력을 가진 탐욕스러운 사람은 종종 추론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말했듯이 압다는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전투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도 때때로 두려움과 낙담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단호한 재판관이 필요했습니다. 낙담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백성을 잘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압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11 장 29 절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압다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압다에게 임했습니다. 압다가 확신과 확신을 얻은 것은 이 신성한 능력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기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준비를 위해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군대를 위한 전사를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준비되었다고 느끼면 담대하게 암몬을 향해 진격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유명한 서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유명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암몬 족속의 성읍 20 개를 무너뜨리고 적군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일련의 패배는 암몬 사람들의 압제를 효과적으로 종식시켰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협하기까지는 사실 50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삼상 11:1).

His vow

As I said we will now come back to consider the vow Jephthah made with God. This is one of those incredibly shocking and disturbing stories that we encounter in the Old Testament. As a father of a daughter it greatly troubles and upsets me as I'm sure it does you. As we look at the story I want you to keep in mind that at no point does God ever demand, request, encourage, condone or endorse what Jephthah does. Let's begin by standing back and looking at Jephthah as a man.

On the positive side we can point to the fact that he was a mighty warrior. He was it seems a natural leader, a man who people were willing to follow. He was also a man of faith. He trusted that God would empower him to do what was necessary. Finally, he was a man who stepped up when he was needed to serve his people. However after saying all all of these positive things we cannot overlook his rash and foolish vow. Let me read it for you now.

30 And Jephthah made a vow to the Lord, and said, "If You will indeed deliver the people of Ammon into my hands, 31 then it will be that whatever comes out of the doors of my house to meet me, when I return in peace from the people of Ammon, shall surely be the Lord's, and I will offer it up as a burnt offering."

A vow is a solemn promise made before God to do, or not do a specified thing. We find God's laws regarding vows mostly in the books of Leviticus and Numbers. It is important for us to note that throughout scripture vows are always voluntary. No one is ever compelled to make a vow. And in fact God also provided a means to take back a rash vow made in haste (Lev 27). However if you do decide to make a vow it is a serious matter. If you promise God something through a vow you are honor bound to go through with it. Look at what we are told in Ecclesiastes chapter 5.

When you make a vow to God, do not delay to pay it; For He has no pleasure in fools.

Pay what you have vowed—Better not to vow than to vow and not pay. (Eccl 5:4)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압다가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살펴보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만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딸의 아버지로서 그것은 당신에게 큰 고통과 회를 줍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은 압다가 하는 일을 요구하거나, 요구하거나, 격려하거나, 묵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서 압다를 남자로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가 강력한 전사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지도자 같았고 사람들이 가까이 따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백성을 섬길 필요가 있을 때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긍정적인 말을 하고도 그의 경솔하고 어리석은 맹세를 간과할 수 없다. 지금 알아드리겠습니다. 30 압다가 여호오벳에게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암몬 자손의 평강이 반드시 여호와께 있나니 내가 그것을 반제로 드리리라.”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서원에 관한 하나님의 법은 주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전 전반에 걸쳐 서약은 항상 자발적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도 서원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성급하게 서원한 것을 돌아킬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해 주셨습니다(레 27장). 그러나 서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따라야 할 영예를 기질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서원할 때 지체하지 말고 갚으십시오. 그분은 어리석은 자를 가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서원한 대로 갚으라—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전 5:4)

Let us at least give Jephthah the benefit of the doubt and say that his vow was well intentioned. He did actually want a good thing. He wanted God's people to be victorious against their enemies the Ammonites. However the problem with vows in general is that they are often a way for humans to try and manipulate God. Jephthah was in a sense trying to make a conditional bargain with God. If you do this, then I'll do that. It's something that we still do today. If you allow me to get this job then I'll make a generous donation to the church. In Jephthah's case such a vow was totally unnecessary. God had empowered him to defeat the Ammonites.

Let us then look carefully at Jephthah's rash vow. I have to confess that it puzzles me. What did Jephthah expect to come out of his house to meet him? In the ancient world animals did wander in and out of the house. So perhaps he expected a goat to run out when he approached. But what about if an unclean or defective animal ran out to meet him. What would he have done then. Also we cannot overlook the fact that it was most likely that a person would come out to meet him. What about if it was a neighbour or a friend? So our question is was he really prepared to offer a human being as a burnt offering?

There are two schools of thought regarding this. Some argue that he intended to dedicate whatever or whoever came out to God. We see an example of this with Samuel. His mother Hannah made a vow that if God blessed her with a male child she would dedicate him to God (1 Sam 1). People holding this view believe he intended to give over this person to God, but not sacrifice them. This view I have to say whilst appealing is a very modern interpretation.

It appeals to what we see as being morally right. We find the idea of sacrifice morally repugnant. However this is not the historical perspective.

The second view, the view held historically is that he was willing to offer a person as a sacrifice to God. This idea throws up several issues. We know that Jephthah was familiar with the scriptures. When he tried to negotiate with the Ammonites he refers to biblical history. So are we to assume that he did not know that God strictly forbade human sacrifice? Why would he think that this monstrous act would please God?

We are all very familiar with how the story plays out. As Jephthah approached his house his only child, a daughter came running out to meet him. She was excited that he was home and that he had been victorious in battle. Her joy soon passed when her father told her about his vow. She is in

many ways the hero of this story. She models perfect obedience to her father and does not wish to see him shamed by breaking his vow. She asks for two months to go into the wilderness with her friends. When this period of time was up she returned home.

What happened to her when she returned after two months? Some say that she was offered up in service at the temple. Others say that he carried out his vow and sacrificed her. The bible does not explicitly say either way. But I am most inclined to believe that he made a human sacrifice of her. He paid a very dear price for his rash vow.

Following this incident Jephthah again found himself in conflict. On this occasion it was not against Israel's external enemies. This time he went into battle against the tribe of Ephraim. They were unhappy at not being included in the fight against the Ammonites. It ended with 42,000 Ephraimites being killed. I don't have time to go into detail here. So I encourage you to read chapter 12 of Judges for yourself.

Let us conclude our examination of Jephthah by looking now at his death.

적어도 압디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고 그의 서원은 선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약의 문제는 그것이 종종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압디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조건부 거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한다면 나는 교회에 관대한 기부를 할 것입니다. 압디의 경우 그러한 서원은 전혀 불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암몬 족속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압디의 경솔한 서원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를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압디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 집에서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고대 세계에서 동물들은 집 안팎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소가 다가오면 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나 흠이 있는 짐승이 그를 만나러 달려온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또한 그를 만나러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웃이나 친구라면?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그가 정말로 인간을 번제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학파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바치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에게서 이것의 예를 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삼상 1장).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다고 생각하지만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호소하면서 말해야 하는 이 견해는 매우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희생의 개념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관점이 아니다. 두 번째 견해인 역사적 견해는 그가 가까이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는 압디가 경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암몬 사람들과 합성하려고 할 때 그는 성경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신 제사를 엄격히 금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다고 가정해야 합니까? 그는 왜 이 고물 같은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압디가 그의 외아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딸이 그를 맞으러 달려왔다. 그녀는 그가 집에 있고 그가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서원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의 기쁨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여러 면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대한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였고 아버지가 서약을 어기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광야에 가는데 두 달을 요청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두 달 만에 돌아온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바쳐졌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서원을 이행하고 그녀를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느 쪽이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녀를 인간 희생으로 만들었다고 가장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경솔한 서약에 대해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압디는 다시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 경우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외부 적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에브라임 자파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42,000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끝났습

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12 장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압다의 죽음을 살펴봄으로써 압다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합시다.

7 And Jephthah judged Israel six years. Then Jephthah the Gileadite died and was buried among the cities of Gilead.

Jephthah would lead God's people for just six years. He managed to pack this short period of time with plenty of incident. He was a mighty warrior and should be remembered for his military successes. He is mentioned by name in the Hebrews hall of faith (Hebrews 11:32).

And what more shall I say? For the time would fail me to tell of Gideon and Barak and Samson and Jephthah, also of David and Samuel and the prophe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look past his rash vow and its tragic outcome. I think then in summarising his life we might describe him as a mighty warrior who was faithful but flawed.

Let us turn now to look at the next three judges. All three are minor judges so sadly there is not much to say about them. Let us look first at judge number 9; Ibzan.

압다는 6 년 동안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전사였으며 그의 군사적 성공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는 히브리서 믿음의 호전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히 11:32).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압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급한 맹세와 그 비극적인 결과를 바라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의 삶을 요약할 때 우리는 그를 충실하지만 결점이 있는 강력한 전사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세 명의 심사위원을 살펴보겠습니다. 3 명 모두 소심편이라 할 말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 먼저 판사 9 번을 보겠습니다. 입잔

Judge 9: Ibzan

8 After him, Ibzan of Bethlehem judged Israel. 9 He had thirty sons. And he gave away thirty daughters in marriage, and brought in thirty daughters from elsewhere for his sons. He judged Israel seven years. 10 Then Ibzan died and was buried at Bethlehem.

The ninth judge of Israel was Ibzan whose name means “father of a target” or “father of coldness.” His life as a judge is told to us in just three verses. So either he did not do anything of great note, or the writer of judges is choosing to exclude his efforts.

We do not know who, if anyone was oppressing Israel at this time. We are told that his home town was Bethlehem. This was probably not Bethlehem in Judah, the birthplace of David and the Lord Jesus. This was another town called Bethlehem (house of bread) in northern Israel in Zebulun.

We are also told about his family situation. He had thirty sons and thirty daughters. Having a family of this size means that he was a polygamist who had multiple wives. It also strongly suggest he was a man of wealth and prestige. He judged Israel for seven years and was buried in Bethlehem. Let's turn now to the tenth judge.

이스라엘의 이홉 번째 사사는 입잔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목표물의 아버지” 또는 “냉정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재판관으로서의 그의 삶은 단 세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심사위원의 작가가 그의 노력을 배제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아마도 다윗과 주 예수의 출생지인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 이스라엘의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빵의 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읍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가족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30 명의 아들과 30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가족이 있다는 것은 그가 여러 아내를 둔 일부다처주의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임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는 7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이제 열 번째 재판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Judge 10: Elon

11 After him, Elon the Zebulunite judged Israel. He judged Israel ten years. 12 And Elon the Zebulunite died and was buried at Aijalon in the country of Zebulun.

The tenth judge of Israel was Elon. The name Elon means “oak” or “strong.” Sadly we know very little about the situation in Israel at this time or what he did as a judge. His life as a judge is given to us in just two verses. He was also from the region of Zebulun but we are not sure where exactly his home town of Aijalon was located. He judged Israel for 10 years. Let us look at our final judge today Abdon.

이스라엘의 열 번째 사사는 엘론이었습니다. Elon이라는 이름은 "오크" 또는 "강한"을 의미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그가 재판관으로서 한 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재판관으로서의 그의 삶은 단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도 스불론 지방 출신이었지만 그의 고향인 아얌론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0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사사인 압돈을 봅시다.

Judge 11: Abdon

13 After him, Abdon the son of Hillel the Pirathonite judged Israel. 14 He had forty sons and thirty grandsons, who rode on seventy young donkeys. He judged Israel eight years. 15 Then Abdon the son of Hillel the Pirathonite died and was buried in Pirathon in the land of Ephraim, in the mountains of the Amalekites.

Judge number 11 is Abdon. His name means “servant” or “servile.” His home town of Pirathon was a little south of Shechem in Ephraim. Again we are told about his large family. This as with Ibzan indicates that he had multiple wives and was a wealthy man. This is further emphasised when we are told that his sons and grandsons each had their own donkey. A donkey was a prized and valuable possession in those times. So to be able to afford seventy tells us something about this man's wealth. He judged Israel for eight years.

Next time we will begin a two part study on the the final judge, number 12; Samson.

11 번 판사는 압돈입니다. 그의 이름은 "종" 또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의 고향 비라톤은 에브라임의 세겜에서 조금 남쪽에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의 대가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Ibzan 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가 여러 아내를 가졌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각각 자신의 나귀가 있었다는 말을 들을 때 더욱 강조됩니다. 당나귀는 그 당시에 귀하고 귀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칠십인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는 8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최종 심사위원인 12 번의 두 부분으로 된 연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삼손.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just two comments to make about today's passage.

오늘 본문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Don't make rash vows

Vows are a serious matter. Even today most of us consider making a vow an important thing. For example the vows we make when we get married are not something to be taken lightly. They are

something, I hope that we consider carefully. We are making a lifetime commitment in the sight of God. For Jephthah his rash vow had life changing consequences. And we too should be careful before we make a vow. Words are important to God and that is why the bible cautions us against making vows. So I urge you to be careful about what you promise others and particularly what you promise God. Sometimes we can be tempted just like Jephthah to make a conditional vow with God. If you do this, then I will do this in return. If you make such a vow God will hold you to it. If you break a vow that makes you a liar and someone who cannot be trusted. Such a person does not bring glory to God. Therefore don't make rash vows. It is probably wise not to make vows at all.

서약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대부분은 서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하는 서약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 한신하고 있습니다. 입다에게 그의 경솔한 서원은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원하기 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은 서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하는 약속, 특히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입다처럼 하나님과 조건부 서원을 하도록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서원을 어긴 경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서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Be a person who stands by their word

Although we are horrified with the outcome of Jephthah's vow we should acknowledge the fact that he kept his word or promise. There is an English idiom that goes, **My word is my bond**. It means that if I say I will do something I will do it. There is no need for a contract because my word is sufficient.

Christians ought to be people who think carefully about what they say and who can be trusted to stand upon what they have said. If you say you will do something you should do it. Sadly we often say things in haste and later go back on our promises. I have been let down many times by Christians who have said they will do something and then have not followed through. If you say you will join the praise and worship team I expect you to keep your word. If you tell me you will attend church on Sunday I expect to see you there. Let us then think more carefully about what we say and be people who stand upon our words.

우리는 입다의 서원 결과가 두렵지만 입다가 그의 말이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My word is my bond 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말이 충실히 때문에 계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한 말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종종 성급하게 말을 하고 나중에 약속을 어깁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끝까지 지키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번 실망했습니다. 찬양예배팀에 합류하겠다고 하시면 말씀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곳에서 당신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말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더 신중하게 □□□□.

